

<2022년 11월 20일 주일말씀>

주제 : 절대적인 믿음

사랑으로 이같이 되는 것이다.

※ 사랑으로 이같이 되는 것이다.

→ 사랑으로 철강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뜻

본문 :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핵심 요약>

●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하신 일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진다.

●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하신 일들〉을 100% 알고 믿으면,

완벽한 믿음이 들어간다.

-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었다.

오실 이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
이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참조)

- 우리는 섭리역사의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다.
그 일들은 표적과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보고 함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성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행해 왔다.
행해 온 사람들이 우리인데, 움츠릴 필요 없다.

- 하나님을 믿고 행한 일들을 절대 믿고,
구원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100% 온전한 믿음이다.

-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 지난 44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아라.
성경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잊으면, 믿음이 흔들린다.
-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하신 역사가 맞다.
- 하나님이 행하신 것,
성자와 예수님이 시대 사명자와 함께 행하신 것을 절대 믿으면
흔들림이 없다.
-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마 9:29)
절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병도 믿음대로 낫는 것이고,
각종 문제도 믿음대로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다.

절대 믿음이란, 행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온다.
그러니 절대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확실히 깨달았다.
우리가 본 바요, 아는 바요, 깨달은 바다.
- 예수님 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때와 같이 보일 것이 없느냐고 구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이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이니 보여 준 것이다.” 하셨다.

-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환난 · 핍박 ·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생명들을 구원하여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시키고,
아들 주관권 역사임을 확실히 인식시키며 역사했다.

말로만 아들 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것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들 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 이 시대 우리들은 사랑의 주권을 받았다.

아들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한다.

그러나 <사랑의 주권>은 ‘우리의 자랑거리’ 다.
그러니 절대 믿고, 그 주권을 상실하지 마라.
이것이 철강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

-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느 시대든지 완전한 시대 말씀을 듣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신적, 육적,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함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절대 믿어라. 절대 믿고 행하는 것이다.
안 믿으면, 힘이 없다.

절대 믿으면, 삼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할 것이다.
절대 믿는 만큼, 삼위와 예수님께서서 함께하신다.

- 너희가 섭리 역사를 따라오며
너희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있지 않냐.

보여 주고 해 주었는데, 안 믿으면 되겠냐.

병에서 살려 주었고, 신앙의 죽음에서 살려 주었다.
사망권으로 갈 사람이 영원한 생명권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동안 역사해 주고 함께해 준 삼위와 예수님, 사명자의 표적이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다.
믿어 줘야, 사랑이 더욱 불타는 것이다.
믿음 위에 사랑이다.

- 형제들도 믿어 줘라. 의심 말고, 믿어 주기다.
그리고 삼위와 예수님이 쓰시어 그 육이 되어 행한 자 믿어 주기.

-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100% 믿음이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 자체가 능력이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번 하면 100% 한다.
그러니 너희도 100% 믿고 나와 함께 행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 선생이 기도하기를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도 영으로도 사고 나지 않고,
굳건하여 이 생명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세요.

철강 같은 믿음을 얻게 해 주세요.

섭리역사도,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이같이 되느니라.” 하셨다.

“사랑 때문에 이같이 되느니라.” - 이 음성이 세 번 들렸다.

-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초를 아껴야 한다.

지구 돌리고 태양을 운행하는 그 1초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도

내가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 1초의 시간을 살 수 없다.”

그러니 1초의 시간도 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누구를 험담하고 모략하는 데 쓰지 말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데, 낙담하고 포기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영>을 위해 쓴 것은 ‘영원히’ 남아진다.

끝까지 견디고 열심히 해라.